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19일 수요일(주간) 제40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축열차 다시 달린다

2001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운행됐던 봉축 테마열차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눈길을 끌며 서울시내를 내달렸다. 도시철도 5호선 방화↔상일 구간을 매일 4~6회씩 오가며 불교 문화를 선보였던 봉축열차를 탄 인원만도 46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봉축열차 객차는 선방이자 연꽃밭이었다. 객차 외부는 단청문양과 반가사유상 등 불교 상징물로 장엄됐다. 이를 본 시민들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정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운행시간 등 봉축열차에 관한 문의전화가 5~8호선 147개역에서 1만2천여 건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 봉축열차가 지난해에는 1억2천여만원 가량의 예산이 없어 운행되지 못했다. 예산을 분담해야 할 종단들이 "종단 홍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지하철 포교단체인 풍경소리가 올해에는 반드시 봉축열차를 운행하겠다고 나섰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보문종 등 주요 종단들이 참여 의사를 이미 밝혔고, 최대 종단인 조계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래 들어 지하철은 월드컵이나 크리스마스때도 테마열차 운행으로 호응을 얻었다. 탁월한 홍보효과 때문에 테마열차 운행을 위한 단체와 기업들의 참여도 점점 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봉축열차를 다시 운행하겠다는 소식은 불자들에게 지하철이라는 경직된 공간에서 사찰과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뜻밖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다시 운행되는 봉축열차가 모든 시민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박봉영(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종하 · 법장스님 후보등록
10일동안 공식선거 활동

◇종책토론회에서 종하(왼쪽에서 세번째) · 법장(오른쪽에서 세번째)스님은 자신의 종단운영 방침을 밝혔다.

14일 불교회관서 종책토론 … 24일 선거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은 1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이날부터 10일간의 공식 선거활동에 들어갔다. 후보자 기호는 동시 접수시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는 합의에 따라 추첨을 실시, 종하스님이 기호 1번, 법장스님이 기호 2번을 부여받았다. 다른 후보가 등록시 등록순서에 따라 기호를 받게 된다.

후보등록을 마친 두 스님은 곧바로 종단운영방향을 담은 종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후 한국불교기자협회와 중앙신도회, 불교TV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보 초청 종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2 · 4 · 5면

이에 앞서 직할교구 등 전국 24개 교구본사는 각 10명씩 총무원장 선거인단 240명을 확정했다.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 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되며, 투표 후 곧바로 개표를 실시, 1시간 이내에 당선자가 확정된다.

두 스님은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 · 종무행정 · 수행 및 포교 · 사회문화 네 분야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기본교육기관 체계정비와 관련해 종하스님은 전통과 현대식 교육의 조화를, 법장스님은 체계 재정비를 주장했다. 수행환경 침해 사례에 대해 종하스님은 사전 차단을, 법장스님은 대정부관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종하스님은 종단의 지속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장스님은 말사주지 인사권의 교구본사 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두 스님은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불교계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이행 촉구를,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토론회에 앞서 두 스님은 후보등록을 마친 후 교구별 승가노후복지시설 건립, 해외교구 설치 등의 공약을 담은 종책을 발표했다.

종하스님은 종무기관 상설 협의기구 설치,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재가 수행관 건립, 사면 · 복권 실시, 국고와 기업문화기금 유치 등을, 법장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 본사주지 이양, 상설 행자교육원 설치, 외국인 전용 수행관 설립, 교구 중앙분담금 대폭 삭감, 대정부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세상총림서 다시 결제를"

법전 조계종 종정 동안거 해제 법어

임오년 동안거 해제법회가 15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0여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총림 방장 법어 3면

이날 해인사 해제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해제를 하면 대중들은 산중총림에서 세상총림으로 만행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시방세계가 모두 총림"이라며 "걸음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 총림 아닌 곳이 없으며, 해제는 세상의 총림에서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서는 전국 87개 선원에서 1,826명(주지 등 외호스님 299명 제외)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고종도 100여 스님이 동안거를 마쳤다.

한명우 기자

유네스코 석굴암 조사
문화재청과 시기 협의중

석굴암 경내에 모형전시관을 건립하려는 계획과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가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문화재청에 전달했으며, 현재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석굴암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WHC는 이를 관장하는 기구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WHC의 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화재위원회가 모형전시관 건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를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승려노후대책 수립 시급하다

사찰운영,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커

조계종 본 · 말사 주지 설문

조계종 본 · 말사 주지들은 '승려노후대책' 마련을 종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적 어려움을 사찰운영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종단 미래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이 '희망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교구 본사별로 실시한 본 · 말사 주지연수교육 참가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른 것이다. 설문 응답자는 모두 820명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비율은 6대4다.

설문에 따르면 종단 당면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승려 노후복지 대책'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승가교육 및 수행정신 회복'(17.7%) '수행체계 정립'(16.7%) '행정체계 정비 및 개혁'(9.0%) 순으로 나타났다.

사찰운영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재정적 어려움'(23.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구인난'(21.4%) '신도교육 방법 및 교재 부족'(12.4%) 순으로 답변했다. 종단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는 답변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16.8%에 그쳤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5.9%였다. 97년과 99년 조사 때 '희망적'이라는 답변은 49.2%와 41.7%였다.

관련기사 2면

한명우 기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봉축일' 남북동시법회 봉행

북한단청지원 실사단 3월중순 파견

'부처님오신날' '6 · 15남북공동선언' '8 · 15' 남북불교 동시법회 및 공동발원문 발표가 올해도 봉행된다.

10~11일까지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남북불교회담을 가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진각종 등은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추본은 단청지원을 위해 3월 중순경 4박 5일간 5~6명의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조불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4월 단청관련 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이번 회담에서 조불련측이 북한 사찰용 앰프 및 내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제8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2일 (토)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붓다뉴스'로 확인하세요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속보 buddhanews.com 실시간으로 보도

mahamall.co.kr
희담석 稀潭石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미하몰이 추천하는 상품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카키색, 살구색
〈희담석 몸갈맥〉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장소비자가격 : 80,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 :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직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데 수 개월 동안 항문 부분이 몹시 아팠다. 잘못하면 치질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고 있던 중 〈희담석 방석〉을 만나게 되었다. 그냥 의자에 깔고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항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석을 사용한 지 불과 보름이나 지났을까? 〈희담석 방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더니 확안한 일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이라니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더 구매 둬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원(43세/남, 작가)
●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재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명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 나는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데 밤샘 작업 후나 아근 후에는 어깨와 팔이 수시로 쑤시곤 했다. 그러던 중 미하몰에서 판매되는 〈희담석 방석〉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방석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과 함께 비싼만큼 무언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여 직장에서는 방석으로, 집에서는 팔과 어깨 부위 등에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제는 항상 〈희담석 방석〉을 항상 지니고 생활하는 희담석 매니아가 되어 버렸다. 최장근(33세/남, 컴퓨터 디자이너)
●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자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정안 스님(전남, 덕흥사)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